

‘태풍 무대책’ 여객선 피항지 시급

목포여객선터미널·북항, 기상특보 발령시 어선 몰려 주차 전쟁 여객선 피항지 확보 위한 운항 중단에 이용객 불편...파손 사고도

유사시 선박들이 피항할 수 있는 부두 자리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목포여객선터미널과 북항은 기상특보가 내리면 피항 어선 수백 척이 몰리면서 ‘주차’ (피항지) 경쟁이 벌어진다. 특히 규모가 큰 여객선들의 경우 몸집이 크다 보니 소형 어선보다 자리 경쟁이 치열하다. 미리 주차공간(피항지)을 확보하기 위해 운항을 중단하거나 출항 시간을 바꾸는 바람에 섬 주민들과 여객선 이용객들의 발이 묶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최미숙(더민중·신안 2) 전남도의원이 29일 열린 ‘제 36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여객선 전용 피항지를 확충하라’며 5분 자유 발언에 나

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태풍이 북상하는 3~4일 전부터 목포 여객선선착장은 조기 피항한 선박 수백 척들도 가득차 운항을 마친 여객선들의 경우 피항할 데가 없다”면서 “이러다 보니 부두 자리를 확보하려는 여객선들이 미리 피항지로 이동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운항을 중단하거나 출항 시간을 바꿔 섬 주민들과 여객선 이용객들의 발이 묶이는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목포 선적만 1027척에 이르는 데다, 26개 항로를 운항중인 여객선 33척과 예비선 10척 등 43척의 선박은 규모가 일반 소형 어선보다 커 여객선터미널 선착장에 피항할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계 최 의원은 주장이다. 인근 목포 북항도 상시 정박한 화물선들로 인해 공간이 없고, 삼학도 부두 선착장의 경우 레저용 선박 위주로 조성되면서 빈 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년 전 태풍 마이삭 상륙 당시에는 어선들로 포화 상태였던 피항지를 벗어나 정박했던 신안발 여객선이 파손되는 사고도 발생했다”면서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사업과 일반인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 등으로 여객선 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근본적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우선 2023년까지 길이 413m 규모로 소형 어선 전용 부두를 북항에 건설하고, 2029년까지 1045m로 확장하는 계획을 해양수산부의 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탄력’

“우빈, 콜옵션 행사 문제없다” 임시주주 요구 가치분 각각 사업 정상개도 오를 듯

업체 내부적으로 지루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이 관련 분쟁에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 주주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케이앤지스틸 측 가치분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쟁에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 주주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주식회사 케이앤지스틸 측 가치분을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수목적법인(SPC) 빚고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 주주 중 한 곳으로, 한양이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케이앤지스틸이 SPC를 상대로 낸 주주 명의개서 금지 가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주주 24만주(24억원)에 대한 임시 주주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케이앤지스틸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SPC 주주사인 우빈에 케이앤지스틸의 주주권 행사를 위임한다는 합의 규정과 주시양도 시 우빈에게 우선매수권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케이앤지스틸이 대여금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빚고중앙공원은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엔 21% 출자지분율로 설립됐다.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은 2019년 12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우빈 측이 케이앤지스틸 지분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다.

케이앤지스틸은 2020년 10월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하는 대신 우빈이 대납한 주식 대금 24억원을 대여금으로 간주하고 우빈이 케이앤지스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합의를 했다.

이 사이 시공사로 참여하려 한 한양과 비한양 구도가 형성됐고,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케이앤지스틸의 경영권이 한양에 넘어갔고, 케이앤지스틸은 지난 5월 우빈에 대여금을 갖고 실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빚고중앙공원에 통보했다.

우빈은 이를 거부하고 케이앤지스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고, 케이앤지스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9일 오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관련 부대시찰과 이진토의에 참석한 송갑석 의원들이 부대관계자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안 내년까지 마련

국방부·광주시·공원공단, 현장 합동 토의 개최

국방부·광주시 등이 무등산 정상에 있는 방공포대 이전 계획을 내년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9일 오후 광주 무등산 방공포대에서 국방부, 광주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현장 합동 토의를 개최했다.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관, 국방부 군사시설 기획관, 합동참모본부 방공작전과장, 육군 제31 보병사단 작전부사단장, 광주시 군공항공교통국장, 국

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과장 등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만료되는 내년 12월 전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 오늘 회의의 성과”라며 “어디로, 언제까지 이전하고 훼손된 무등산 정상부를 어떻게 복원할지 3가지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는 이전사업 주체로서 부지 선정을 광주시에 떠넘기지 말고 부대 운영, 임무,

작전, 경제성 등 검토를 거쳐 후보지를 광주시에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내 이전 후보지를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매년 2회에서 최대 4회에 그쳤던 무등산 정상 개방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당부했다.

공군은 1961년부터 광주시 소유 무등산 정상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66년부터는 방공포대가 주둔하고 있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부 시민 품으로 돌려주려고 1995년 국방부에 방공포대 이전을 건의했으며 2015년에는 이전 협약도 체결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대병원, 3년간 연구비 수주 2천억 달성

의생명연구원, 지난해 850억원 등 연구과제 통계 발표

전남대병원 의료진들의 연구비 수주 금액이 지난해 800억원을 훌쩍 넘어 전국 최고의 연구중심 병원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연구비 수주 금액이 약 2000억원에 이르는 등 전남대병원의 연구 실적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연구과제는 총 531개로 그 중 국가과제는 270개, 민간과제는 261개였으며 연구비 수주액은 약 848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인 연구사업으로는 ‘임상데이터 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 지원 사업’ (127억원·산업통상자원부)으로 첨단2지구에 건립된 융합의료기기 산학협력 센터를 중심으로 3D프린팅 의료기기 산학협력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자맞

춤형 인체모사 융합의료기기 제품화 전주를 지원한다.

또 화산전남대병원이 중심이 돼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지원 기반 조성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 분석 지원 ▲시험평가 등 전주기 임상시험 지원 ▲정밀의료분야 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정밀의료 국가허브를 구축하는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플랫폼 구축’ (150억원·산업통상자원부) 사업도 진행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의 연구비 수주는 ▲2019년 486억원(517건) ▲2020년 618억원(478건) ▲2021년 848억원(5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 1526건의 연구사업을 따내 수주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최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여수 돌산 상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기반시설이 설치 예정인 여수 돌산 상포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지역은 여수 돌산읍 평사리, 우두리 일원 1.97km²(226필지)다. 자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됐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전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확정했다. 재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여수시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망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